

광남시론

위인백

(사)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대한민국은 흑인의 압도적 압해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부패하고 무능했던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독선에 독주로 일관하다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광장의 민주주의로 탄핵하고, 이들을 구속하자 세계인은 K-민주주의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친위쿠데타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과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분이 든든한 사회, 국의 중심의 외교 안보를 기본으로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광주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으로, 또 학생독립운동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립운동을 했으며, 군부독재에 죽음으로 저항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도에 왔다.

또한 지난겨울과 봄,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하기까지 123일간의 줄기찬 투쟁은 의향으로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제는 빛의 광장에서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을 위해서 광주진보연대와 광주·전남시국회의가 주관한 ‘빛의 혁명과 한국사회 체제전환운

한국사회 체제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동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1차에 이어 2차 토론회를 지난달 26일 전일빌딩 245에서 가졌다.

하승수변호사의 발제로 필자도 참여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은 권력 집중, 중앙집권, 기득권 정당구조, 수도권 일극 집중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고, 논점은 제6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이었다.

헌법개정 의당위상으로 대권에서 분권으로,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의 보장·확대, 기본권 강화, 독립기관의 독립성 강화, 개헌 절차법과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다 당제 정치개혁 방안, 그리고 사회 대개혁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타파, 지역 정치·행정의 개혁, 국민주권, 주민주권을 포함하자는 내용이었고, 개헌은 단계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순차적으로 완료하자는 것이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정착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창설과 군사정보보다 상대적으로 진전된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일장 정도 진전시켰다.

무엇보다 이번 내란의 친위쿠데타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제의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⑤항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청산해야 할 5공세력이 개헌에 참여함으로써 대통령 중심, 중앙정부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

시킨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의 내란행태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제6공화국 헌법은 집중된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권력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개헌을 원해도 지금껏 개헌을 못한 것은 오직 위정자들 간 권력 놀이를 위해서만 논의해 왔다는 뜻이고, 국민은 들러리로 그들에 관련한 사안은 배제되어 왔다는 증거다.

이원정부제는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권한을 분담하는 정부형태로 권력의 균형은 물론, 군소정당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정에 가장 합당한 정부형태다.

대통령은 과반의 득표를 얻도록 결선투표를 통한 6년 단임으로 국가의 대표성을 확보해서 외교와 국방·안보에 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여 내치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잘못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통치하면, 권력의 집중도 막고 역할도 분명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탄압 등 악순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원정부제는 2014년 제19대 국회개헌특위에서 헌법학자 김철수교수 등이 참여해 마련했던 개헌안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이원정부제의 제7공화국을 수립하여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 황금빛 부세를 다시 바라본다

시장 내에 부세의 생산 즉, 양식과 유통 등 생산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부세의 생태적 위기와 자원 회복의 필요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과거 한국 연안에서도 부세는 흔하게 잡히던 생선이었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변화, 남획, 산란장 파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연산 부세 자원은 300t 남짓으로 급감했다. 현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행히도, 최근 국내 수산 분야에서는 부세 자원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여수, 고흥 등 전남 양식어가에 부세 종자 100만 마리를 분양하면서 어업인 기술지도, 수협 위탁 출하 지원 등 양식 기반 구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젠 기후변화 시기에 맞춰 부세를 다시 바라볼 때이다. 전략적 양식산업화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품종개량 및 고수온기 생존을 향상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양식산업의 최대 리스크다. 중국의 푸젠성 닝타시는 부세 양식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이 해역은 여름철 수온이 평균 31도를 웃돌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더운 지역이다. 우리 해역에서 생존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품종개량은 필수 과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양식 시스템 구축이다. 부세는 상품

출하까지 18개월 이내로 성장이 빨라, 적절한 환경 조성 시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어종이어서 지역 맞춤형 양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종자보급체계의 공공적 기반 강화이다. 2025년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사업에 따르면, 여수시 등 3개 시군에서 부세 종자 약 300만 마리를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위탁 및 연구기관 협력으로 안정적인 종자 대량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내 소비와 고부가가치 유통시장의 창출이다. 국산 부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식 생산 가격으로만 중국산 부세와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산 부세의 이력관리, 친환경 인증 등을 통해 전남만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유통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또한 밀키트, 가공식품 등 MZ세대를 공략한 가공편식 시장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끝으로, 부세는 더 이상 낯선 어종이 아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상징적 가치를 지녀온 부세는 단순한 수산 어족자원이 아닌, 문화적·경제적·생태적 자산이다. 우리는 이 어종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 전남 수산산업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어촌 경제를 살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부세 양식산업의 태동기다. 행정적 뒷받침, 연구기술의 집적, 어업인과 연구기관의 힘이 합쳐 진다면, 부세는 미래 수산산업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광주·전남 역대 최대 국비확보…현안 순풍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광주 3조6616억원, 전남 9조4188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광주는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3244억원보다 3372억원(10.1%)이, 전남은 전년도 8조8928억원에서 5260억원(6%)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역 먹거리인 미래산업과 현안 사업이 이번 정부예산안에 대거 포함돼 있어 이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의 경우 먼저 미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240억원),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10억원),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2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5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1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55억원) 등 굵직한 사업이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1665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238억원), 경전선 전철화(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668억원) 등이 확보됐다.

전남은 광주 송정~전남 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1632억원),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기본 계획 수립(5억원), 광주 송정~전남 순천 경전선 전철화(1672억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무안·여수공항 시설개선 공사비(96억원)도 확보,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 공항은 조류탐지 레이더와 활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여수공항은 활주로 착륙대와 종단 안전 구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설계비(35억원), K-디즈니 에니·웬튼 인제 양성 거점 기관 조성(3억원),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10억원),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4억원) 등도 반영됐다고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심사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회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시·도는 오는 12월 확정되는 국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기해 주길 바란다.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조속 추진을

지지부진했던 광주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마치고 조건부로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9년이 만으로 그동안 이 일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거래가 제한돼 사업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여기서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말한다.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는 한마디로 호남권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를 지역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칭한다.

사업 시행자인 LH가 광산구 송정동과 송촌동, 장곡동 등 송정역 주변 55만8158㎡(약 17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5943억원을 투자, 송정역 앞 부지는 올드앤뉴 스퀘어 조성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상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역사 후면은 연구 지원시설과 주거, 상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광주송정역이 서남권 광역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 주변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자 전 사업성을 최종 평가하는 LH의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정체돼 왔던 이 일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LH와 광주시는 사업성 보완 등 조건 사항을 이행한 뒤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광주송정역은 광주·전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수원인 이 개발사업이 조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돼 이 일대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기고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부세라는 생선은 단순한 어종을 넘어선 문화적 자산이다. 부세(학명: Larimichthys crocea)는 외형적으로 금빛 비늘을 지녀 중국어로는 ‘황어(黃魚)’라 불리며, 이름 그대로 ‘부(富)’와 ‘길(吉)’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투영되어 있어 빛깔에 대한 미적 요소와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겨 있다. 예로부터 황제의 진상품으로 사용 되었으며, 명절 등 큰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고급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부세가 단순한 수산물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정서와 세계관을 반영한 ‘문화어종’임을 보여준다.

부세는 중국에서 연간 생산량이 23만 톤으로 전체 해산 어류 중 14%를 차지해 단연 1등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30억 마리의 종자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양식 기술이 고도화 되어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흔히 ‘굴비정식’이라 불리는 음식의 주재료가 바로 부세인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양식 부세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세가 한국의 제사상이나 외식 등 식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기고

장동인

광주 동구 자치행정국장



“예술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말처럼 예술과 축제 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다. 바쁘고 각박한 도심에서 이웃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약해지는 오늘날, 광주 동구가 주관한 ‘소소한 마을예술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동구는 지난 몇 년간 주민총회를 확장해 보다 많은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주민자치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올해 13개 행정동 주민자치회가 힘을 모아 준비한 ‘소소한 마을예술축제’는 그 결실을 보여주는 자리다. 각 동마다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전시·체험 부스와 마을 이벤트는 작은 골목과 생활공간을 문화의 무대로 바꾸고,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운다.

지난 6월 21일 광주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지원1동 주민총회와 마을예술축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폭

주민이 주인 되는 광주 동구 마을예술축제

우 속에서도 600여명의 주민이 모여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한 특별한 축제를 함께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와 함께 2026년을 이끌어갈 마을 의제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됐다. 온라인과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안전한 마을 만들기, 마을도서관 조성, 마을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선도마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의제가 선택됐다.

이어 열린 축제 한마당은 세대와 세대를, 마을과 마을을 하나로 묶었다. 지원1동은 14개동을 거주지별 네 그룹으로 나눠 ‘머·굴·마·을’ 네 팀 단합대회를 열었다. 협동공 튀기기, 단어 찾기, 에어 사다리 릴레이, 박 터트리기의 경기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팀을 이루며 호흡하고 웃음을 나눴다.

이처럼 지원1동에서 확인한 성과는 ‘소소한 마을예술축제’가 결코 소소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예술과 놀이를 통해 소통하며, 일상의 공간을 공동체 문화 무대로 다시 세우는 것. 그 속에서 마을은 살아 숨 쉬고 변화한다. 주민 참여형 예술축제는 공동체 회복의 강력한 도구다.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일본의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주민과 예술가, 방문객이 어우러져 쇠락한 지역을 되살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 역시 강릉

단오제, 서울거리예술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등 주민 참여형 축제를 통해 도시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광주 동구의 마을예술축제는 이 전통을 잇되, 동별 주민총회와 결합해 ‘생활 자치와 생활 문화가 하나 되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축제가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이 함께 만든 경험은 곧 생활문화 동아리와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진다. 작은 참여가 더 큰 참여를 부르고, 추억과 공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을은 더욱 풍요로운 민주적 공간으로 변화한다. 추수의 계절 가을,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활동과 지원2동 등 12개 동에서 펼쳐질 마을예술축제는 또 하나의 문화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남긴 “인간은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남는다”는 명언처럼, 6월 지원1동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곧 잇달아 펼쳐질 12개동의 이야기들이 모여 광주 동구라는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예술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이해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 그 속에서 동구는 더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예술과 주민자치가 만나는 이 축제가 동구의 현재를 밝히고 미래를 비추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